

설교복기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마태복음 28:16-20)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설교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쉽지는 않아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충한다고 하니까 더 힘드시겠네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기차간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십년쯤 전에 서울 샘터교회에서 이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신학공부라고 즐겨요.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 만든 겁니다. 영남신학대학교 하고 다른 한 두 군데인가 그 신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이라는 커리큘럼 과목으로 하여튼 강의 노트를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묶었습니다. 전체가 20장까지 있어요. 20개 항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3부 10강 삼위일체에 관해서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어떤 그 대구성서아카데미 회원이 읽어서 오디오로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북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다비아 샘터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후에 설교복기 시간에 오는 회원이에요. 나이가 50 대 초반쯤 됐을까요? 아무튼 공장 사장이시고 다른 좀 큰 교회의 안수집사로 활동을 할 겁니다.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는 수년 전부터는 들어왔죠. 그리스도교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몇 달 전부터 제 책을 오디오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꼬도 올리고 있고 지금 몇 개를 한 거 같은데 일단 이 신학공부는 다 마쳤고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그 전에 로마서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뭐꼬를 오디오로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서 들어 보십시오.



발터 카스퍼  
(1933-현재)

20강인데 3부 10강입니다. 157쪽부터 있네요. 그 강의안에 앞부분에 나온 발터 카스퍼의 글과 판넨베르크 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분이 조직신학교수로 세계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터 카스퍼 라고 정말 유명합니다. 그 분의 책에서 그 책 제목은 오펜바름 고테스 인더 계슈히테라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 라고 하는 책인지 아티클 제목인지 요 각주로만 보면 정확하지 않네요.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령의 활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시에 대한 적절한, 필수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해석이다. 해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인 거죠. 신학은 해석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에요. 또 물리학도 사실은 해석인 거죠. 물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한번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것만큼 새로운 세계에 있어요. 제가 설교시간에 양자역학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별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세계가 너

무 다층적입니다.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코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 권의 책, 제가 그걸 몇 번 소개했습니다. 그 젊은 독일 철학자인데 세계는 왜 없는가 사회란 무엇인가 하여튼 등등에 3권의 책을 읽고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로 세계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입에 담을 필요도 없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 세계는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 차원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들은 일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물리학에서는 다중우주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겹치고 저렇게 겹치고 우주가 다중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그 일부 한 순간 찰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없이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일종의 신인 동성동형론에 빠지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투사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철학과 물리학 이게 절대적인 거다 혹은 신학은 바로 거기에 의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발터 카스파에 말로 들어와서요. 삼위일체론은 해석인 거예요. 근데 필연적인 해석이고 필수적인 해석이고 아주 적절한 맞는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적 신앙고백은 그리스도교적 구원의 현실성이 의존하는 구원의 현실성 Reality of Salvation이 의존하는 그 구원의 실제, 현실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어렴풋한 구원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참된 거, 근데 그게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책, 이런 걸 현실성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거 지나가고 불에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아닌 건 아닌데 이게 궁극적인 현실성은 아니예요. 종말에다 드러나게 될 그 빛에서 보는 현실성을 밝히는 거죠.

**그 구원의 현실성에 의존하는 그리스도교적 구원 신비 전체에 대한 요약이며 개요다.** 그리스도교적 구원 신비 전체에(일부가 아니라) 대한 요약이며 개요다. 하나님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니면 내가 세계 선교사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이걸 일부예요. 전체가 아니예요. **그 구원 신비 전체에 대한 요약이며 개요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의 대표적 조직 신학자 판네페르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증명될 때까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삼위일체론적으로 중재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 조금만 그래도 요 문장 설명 할게요.

설명할수록 더 골치 아프긴 한데요. 안돼도 자꾸만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계가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걸 학문적으로 만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뭐가 있을까 운명이 저렇고 말이죠 왜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계산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양자역학 얘기하지만 그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더 미시로 가면 더 거시로 하게 되면 전혀 우리는 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는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직 실체를 다 드러내지 않는 어떤 세계의 현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생활 하는 데는 별로 필요없긴한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생활을 해 갖고는 우리가 만족이 안 되죠. 교회에서 권사 장로 되고 칭찬 받고 이렇게 해서 등등 해서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교부들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자기 목숨을 떼어 놓고 교리문제에 따라 들어갔고 그게 계속돼서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런 논쟁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끼리 싸운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 논쟁이었어요. 자기의 운명을 걸 만한 어떠한 진리 라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런 진리 논쟁의 후예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생활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딱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은 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아 그냥 재미있게 드라마 보고 일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좀 좋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책을 읽어야 되고 예술을 경험해야 되고 등등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괜찮은 공동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나 길 그 영성의 중심에 닿지 않으면 만족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사유를 하는 거죠. 꼭 신 학교 가란 얘기 아니라 사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부들이 붙들었던 주제를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걸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문혔던, 잠재해 있던 영혼의 꽃 씨앗들이 자극을 받아서 발화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런 신학을 많이 한 사람이고 책도 쓰고 그래서 대단히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어린애입니다. 사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 단계까지 온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모든 신학자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모르니까 궁극적인 것에 가 닿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쓰레기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쓰레기라서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절대적인 어떤 세계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마음 편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만 가능한 건데 그때까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삼위일체론적으로 중재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풍요롭게 맺어 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그 임마누엘 신앙이 예수님의 탄생 전승에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도 또 나오잖아요. 재밌죠. 저도 그냥 눈여겨 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더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마태복음 기자의 영혼을 짊어졌다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왜 그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아까 설교한 대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개념을 안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부분 부분을 영적으로 진정성 있게 경험해서 그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일을 안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다 몰랐습니다. 나중에 교부들이 그 관계를 풀어 낸 거예요.

물리학도 어떤 뭐가 약간 어떤 부분이 열리면 그 학자가 말한다면 뒤에 사람이 그걸 더 풍부하게 풀어내는 것처럼요. 컴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링인가 누가 그거를 시작 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이게 인공지능, 챗GPT 이런 데까지 발전하리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을 지 않았을 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감춰져 있던 건데 뒤에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물리학도 그렇고 모든 심리학도 그렇고 인간이 뭐냐 하는 것도 여전히 비밀인 거고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그러한 흔적을 붙든 거예요. 바로 유대교로부터 내가 알아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이셔.

예수, 역사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우리 선생이었던 그 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령, 그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여기에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그러한 생명 사건들을 일으키는 힘을 또 직면한 거예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각각 아버지 아들을 성령의 이름, 이게 다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인식하고 붙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건 이제 후대에 교부들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이 삼위가, 페르소나가 독립 서로 다르기로 하나, 구분되기는 하나 분리되지는 않고, 하나가 되나 혼합되지 않은 어떤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요. 상당히 그 삼위일체는 헬라 철학에 어떤 그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넨베르크의 '신학과 철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론, 플라톤을 설명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이 플라톤의 뭐 세 가지 개념, 누스(이성), 이데아, 영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플라토니즘을 수용한 기독교)

여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만약에 하게 되면 삼위일체론을 주제로 특강을 몇 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강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거 다 조사해서 강의 준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작하지 얼마 안됐다고 자기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하겠다 그래서 요번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숙제를 덜었습니다.

그 교부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도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의의 종교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밀의의 종교, 비밀스러운 자기들끼리 만의 어떤 그 부분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이비 이단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JMS 라든지 등등 두루두루 자기들끼리 만 통하는 그런 거에 머물러 버려요.

저희 그리스도교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정신인 로마 헬라 철학 가르침 그 선생들과 터 놓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을 그대로 거의 받아들이고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도 거의, 거의라기보다도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도구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그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론 성경 구절 구석구석에 좀 불안한 구석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가리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하고 저 사람들은 하고 우리끼리만 하고 그게 없었습니다. 개방성, 성령의 특징이 개방성인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도 원래 성경에 없었지만 그런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적합하게 변증하기 위하여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성(누스), 이데아, 영혼, 이 세가지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만 얘기했습니다만 세 가지 유형의 그 이단,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독교론하고 삼위일체론하고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본질이 뭐냐 하는 그 문제와 삼위일체론은 같이 가요 삼위일체원의 핵심은 그리스도론에 있는데 여기서 세 신학자들을 거쳤어요. 신학자이면서 신학 학

파쵸. 이 세 개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나중에 삼위일체까지 왔습니다. 그걸 제가 자세하게 제가 하려면 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내가 거칠게 그림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2세기의 아마 오르게네스가 그 초기 그리스도교의 많은 그 사상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의 좌파인 아리우스가 그 종속론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보다는 약간 아래다.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나 아래다. 종속론을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좀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못한 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 신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악을 말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 못 하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못 했는지 안 했는지. 못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얘기하지? 아니 신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신과 동일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종속론, 그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나 본질로 볼 때는 신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 그럴듯한 겁니다.

또 하나의 반대는 양태론이었어요. 종속론은 예수님의 신성이 제한 받는 거고 양태론은 하나님, 인격은 하나인데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가 아들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론에서 논쟁될 때 핵심은 단일 군주론, 신학적 용어로 단일 군주론은 계속 붙드냐? 유일신론이예요. 유일신을 붙드냐 인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냐 거기에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종속론도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그 절대적인 분을 전제해 놓고 또 하나 이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를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양태론은 사벨리우스가 주장하는 건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종속론은 신성이 부정되지만 양태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인성이 그냥 절로 가 버리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론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레호모 베레데우스 라고 전제 하잖아요. 그거 어느 한쪽도 약화되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종속론은 예수님의 신성이 약화되고 양태론은 예수님의 인성에 약화되기 때문에 교부들이 그걸 배격한 거죠.

삼위론이라고 조금 삼위일체론으로 가까이 가는 그 삼위론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도 그거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힘들어서요. 그게 삼위일체에 가장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터틀리안입니다. 터틀리아누스라고 본래 이름으로 라틴어 이름으로 하죠. 이 세 사람 아리우스, 사벨리우스, 터틀리안이 가장 정통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삼위일체론에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 세가지가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단일 군주론 그 유일신론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거 여기에 지

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초기 그 교부들이 얼마나 고민 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많은 논쟁과 뭐 그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타나시우스라고 이 사람 좀 젊었어요. 그 당시에는.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 그렇게 뭐 한 서른 살쯤 됐나 젊은 신학자인데 그 친구가 깃발을 들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아주 그 순수하게 학문적인 논쟁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됐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배경이 조금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한 사람이 교황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황제예요. 좀 이상하죠 그 4세기의 기독교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게 결정되는데 그걸 소집한 사람이 황제입니다. 좋은 일일지 어떤 일일지 모르겠는데 소집한 사람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론이에요. 어쩌면 그 유대교가 회당에서 나사렛 파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방 하지 않았다면 삼위일체론이 아직 묻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상황이 말입니다. 이렇게 쫓겨나니까 뭔가를 한 거거든요. 그게 70년에서 100년 어간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 됐네요. 그 설교 마지막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수 탄생 전승에서 나왔던 이름, 임마누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거론됐어요. 이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임마누엘 신앙을 아주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 높이 있는 하나님, 138억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는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그가 예수에게 의존적으로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도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창조 아버지와 성령, 생명의 힘인 그와 더불어 그와 상호적으로 그리고 의존적으로 구원을 열어가신다는 사실, 성령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밥 먹 는 거나 성찬예식에서도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부분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부활 예수의 부활을 설교 시간에 한 것도 그 실체가 있냐 없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 있어서 문제예요. 창조와 성령과 예수의 하신 일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의 부활은 저절로 이해될 겁니다. 그림처럼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